

독립 무산 스코틀랜드, 이번엔 자치권 확대 논쟁

캐머런 총리 “스코틀랜드 의원들 의결권 제한” 주장 노동당 “약속 안 지키면 독립투표 요구 다시 촉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영국 정치권이 자치권 확대 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중앙 정부와 주요정당이 투표 부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 확대 카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독립투표 후폭풍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연방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대신 잉글랜드와 웨일스 관련 사안에 대한 스코틀랜드 의원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캐머런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 일요일 판 기사를 통해 “영국 의회는 스코틀랜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데 스코틀

랜드 지역구 의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률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치권 확대 시 의회 내 스코틀랜드 의원 활동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당이 주도한 자치권 확대 약속에 반발하는 당내 불만 세력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당대회에 돌입한 노동당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의회에서 웨일스와 잉글랜드 관련 사안에 스코틀랜드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면 스코틀랜드 지역의 5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한 노동당의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캐머런 총리가 22일 버킹엄셔의 지방 관저로 당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이 문제를 포함한 연연방에 대

한 자치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당 내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등의 자치권 확대에 대비해 잉글랜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잉글랜드 제1 장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 그레이링 법무장관은 “잉글랜드에 스코틀랜드만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자치권 확대 이전에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잉글랜드의 건강보험과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에드 밀러밴드 노동당 당수는 “의회와 국가의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며 “의원 신분을 등급화하는 선부는 발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코틀랜드에 약속한 자치권 확대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당 연정에 참여한 자유민주당을 이끄는 닉 클레그 부총리도 “총리가 스코틀랜드 의결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저버리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알렉스 새먼드 자치정부 수반은 “캐머런 총리는 소속당 의원들로부터 자치권 확대 지지도 못 받는 처지”라며 “자치권 확대 약속은 스코틀랜드 주민에 대한 속임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자치권 확대 약속을 저버리면 독립투표 요구가 다시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리실은 논란이 번지자 의회 내 스코틀랜드 의결권 제한 문제는 자치권 확대와 무관하며 주요정당이 합의한 자치권 확대 약속은 명확한 일정 제시를 통해 이행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기후변화 대응 집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신속한 지구적 대응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21일(현지시간)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가운데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수만 명의 활동가들이 거리를 꽉 메운 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대 30년내 지구온도 2도 상승”

국제기후환경연구소 경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금 추세대로 라면 30년 이내에 지구온도가 섭씨 2도나 상승, 임계점을 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정한 유엔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두고 21일(현지시간)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and 테크놀로지 저널을 통해 공개된 3건의 논문은 이같이 관측하면서 이런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새로운 글로벌 환경협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기후환경연구소(CICERO)의 로비 앤드루와 글렌 피터스는 이 공동논문에서 화석연료 연소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지난해 2.3% 늘

어나 연간 사상 최대인 360억t에 달했다면서 이는 앞으로 30년 내에 CO2 배출량 쿼터를 전부 소진하게 된다는 얘기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CO2 배출량은 올해 역시 2.5% 증가한 총 370억t을 기록, 지난해 배출량을 넘어설 것으로 눈은 예측했다. CO2 배출량 쿼터를 초과할 때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극심한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급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4도나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조망 뚫는 인간애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공격을 피해 터키 국경지대 수루크로 몰려와 입국 허용을 기다리는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주민들에게 21일(현지시간) 터키 군인이 물병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계 연인(戀人)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 센 강의 다리 '폰데자르'에 더는 자물쇠를 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파리 시 당국은 지난 19일 폰데자르 난간 일부를 두꺼운 투명 플라스틱 패널로 교체해 자물쇠를 달지 못하도록 막았다.

시 당국은 우선 난간 2개 패널을 투명 플라스틱으로 교체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늘

프랑스 센강의 다리 '폰데자르' '사랑의 자물쇠' 더는 달 수 없다

러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자물쇠가 다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폰데자르에 사랑의 징표로 연인들이 자물쇠를 달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불과 6년만에 폰데자르는 세계적으로

'사랑의 자물쇠 다리'로 유명해져 현재는 155m 길이의 다리에 70만개가 넘는 자물쇠가 달려 있다. 난간 패널 1개당 달린 자물쇠 무게가 500kg에 달해 다리 난간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4배 정도 초과하고 있다고 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6월 자물쇠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난간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파리에 사는 주앙 카를로스 데오르데(53)는 “자물쇠가 없으면 폰데자르가 지닌 매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폰데자르 인근 주민 아르도 비셀마흐(35)는 “자물쇠가 보기 싫었다”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만든 괴상한 물건이었다”며 시 당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연합뉴스

두만강 하구 나선특별시 '국제 자전거 관광축제' 열어

24~25일 이틀간

북한과 중국이 오는 24~25일 두만강 하구의 북한 나선특별시에서 국제 자전거 관광축제를 연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21일 개막한 '2014 연변(延邊)·베테른(Vattern) 국제 자전거 관광축제'의 일부로 이번 축제는 나선시 일대에서 31.5km 도시순환 자전거 경기, 하프코스 마라톤, 10km 달리기, 5km 도보관광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연변·베테른 국

제 자전거 관광축제는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관광국이 지역 홍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자전거 도로경기인 스웨덴 베테른 호수 대회와 이틀을 빌려 기획한 행사다.

주요 행사는 연지(延吉시, 훈춘(珲春)시 등 연변주에서 열리는 지난해부터 행사 일부를 연변주와 국경을 맞댄 북한 나선시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 23개국 자전거 선수와 동호인 700여 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문의062 **264-7789**

시행 | 주 | 심산건설 시공 | 주 | 구산건설

전 세대 남향배치

전용면적 **59m²**

228세대

10월 OPEN

- 입주 전 베이비룸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공기청정기 설치
- 욕실 내부 환풍기 타이머장치 설치
- 건식욕실(인방)
- 애완견 등 화상실 전용 출입문 설치
- 빙2개 및 주방 확장형
- 인방 불박이장 설치

용봉동 도나우타운 현상

공주연립 용봉동 용봉초등학교 용봉중학교

비엔날레 용봉역 용봉시장 용봉초등학교

용봉초등학교 용봉중학교 용봉고등학교 용봉고등학교

M/H 전대사거리 모야엘가 주택전시관 2층